

Session 25 God's Discipline: David's Family Conflicts (2 Sam. 13-15) 제 25 장 하나님의 징계: 다윗 집안의 갈등 (삼하 13-15 장)

I. THE LORD'S DISCIPLINE ON DAVID'S LIFE

다윗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 A. For the next 8 chapters (2 Sam. 13-20), we see the consequences of David's great sin (2 Sam. 11). We see the fulfillment of God's discipline on David as pronounced by Nathan (2 Sam. 12:10-12). In 1 & 2 Samuel, the life of David is set forth in 40 chapters (1 Sam. 16 - 2 Sam. 24) with 10 chapters covering his sin and divine discipline (2 Sam. 11-20) —thus 25% of his story focuses on this.

다음에 나오는 8 개의 장에서 (삼하 13-20 장) 우리는 다윗의 큰 죄(삼하 11 장)로 인한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나단을 통해 선포되었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삼하 12:10-12). 다윗의 삶은 사무엘 상, 하를 통해 40 개 장에 걸쳐 나오는데 (삼상 16 장 - 삼하 24 장), 그의 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삼하 11-20 장)에 대해서는 10 개의 장이 다루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25%에 해당한다.

¹⁰Now therefore, the sword shall never depart from your house, because you have despised Me... ¹¹I will raise up adversity against you from your own house; and I will take your wives before your eyes and give them to your neighbor, and he shall lie with your wives in the sight of this sun. (2 Sam. 12:10-11)

¹⁰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삼았은 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¹¹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 (한글 KJV: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삼하 12:10-11)

- B. The Lord corrects or disciplines those whom He loves and delights in (Prov. 3:12). His correction is not rejection. He uses correction to train us in godliness (Heb. 12:11). Grace includes God forgiving us, but it does not guarantee that all the circumstances caused by our sin are instantly removed.

주님은 그분의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를 교정하며 훈계하신다 (잠 3:12). 그분의 교정은 거절이 아니다. 그분은 교정을 통해 우리가 경건에 대해 훈련되도록 하신다 (히 12:11).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결과들이 즉각 제거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¹²Whom the LORD loves He corrects, just as a father the son in whom he delights. (Prov. 3:12)

¹²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 3:12)

⁶For whom the LORD loves He chastens...⁷If you endure chastening, God deals with you as with sons...¹¹No chastening seems to be joyful for the present, but painful; nevertheless, afterward it yields the peaceable fruit of righteousness to those who have been trained by it. (Heb. 12:5-12)

⁶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⁷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¹¹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 12:5-12)

- C. Even the Lord's anointed must walk in a spirit of obedience. David's sin affected his leadership in his nation and family, thus as a king and a father. The Lord allowed troubles to arise within David's family and leadership for next 25 years. He learned what a bitter thing it is to disobey the Lord.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사람도 순종의 영으로 행해야 한다. 다윗의 죄는 왕으로서 그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아버지로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주님은 다윗의 집과 지도자들 안에 향후 25년 간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는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쓰디쓴 결과를 낳는지를 배우게 된다.

- D. David never lost a battle with a foreign nation, but suffered loss in his family and leadership circle.

다윗은 이방과의 전투에서 절대로 진 적이 없었지만, 자신의 집안과 지도자들 안에서는 손실을 입었다.

- E. There are few things more painful than seeing one's own sins reappear in their children. David was father or uncle to eight cousins who were involved in five of their family members being killed in Absalom's and/or Adonijah's rebellion—Amnon, Jonadab, Absalom, Joab, Abishai, Amasa; Solomon executed his brother Adonijah and then his cousin Joab for seeking to usurp the throne.

자신의 죄가 자신의 자녀들 안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뼈아픈 일은 별로 없다. 다윗은 8명의 사촌지간들의 아버지 혹은 삼촌이었는데, 이들은 압살롬과 아도니야의 반역에서 가족 5명이 죽음과 연관되었다 - 암몬, 요나답, 압살롬, 요압, 아비새, 아마사; 솔로몬은 자신의 형제 아도니야를 처형했으며, 자신의 사촌 요압을 왕좌를 뺏으려 했다는 이유로 처형했다.

II. AMNON RAPED HIS SISTER TAMAR (2 SAM. 13:1-2)

암논이 누이인 다말을 범하다 (삼하 13-12)

- A. Amnon was David's first-born son and heir to the throne—he raped his half-sister Tamar (13:1-2).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고 왕위를 이어받을 자였다. 그는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범했다 (13:1-2).

¹After this Absalom...had a lovely sister, whose name was Tamar; and Amnon the son of David loved her. ²Amnon was so distressed over his sister Tamar that he became sick... (2 Sam. 13:1-2)

¹ 그 후에 ...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²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삼하 13:1-2)

- B. Jonadab gave his cousin Amnon a plan related to Tamar (13:3-5). His plan was that Amnon pretend to be sick and ask his father David to send Tamar to his house to prepare food for him.

요나답은 자신의 사촌인 암논에게 다말에 대한 계획을 말해줬다 (13:3-5). 그의 계획은 암논이 아픈 척을 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을 보내서 그에게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³But Amnon had a friend whose name was Jonadab the son of Shimeah, David's brother... ⁴Amnon said to him, "I love Tamar, my brother Absalom's sister." ⁵So Jonadab said to him, "Lie down on your bed and pretend to be ill. And when your father comes to see you, say to him, 'Please let my sister Tamar come and give me food...'" (2 Sam. 13:3-5)

³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⁴ ...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⁵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 (삼하 13:3-5)

- C. Amnon asked Tamar to feed him in his bedroom and then asked her to lie with him (13:8-11).

암논은 다말에게 침소에서 음식을 먹여달라고 부탁했고, 그러고는 자신과 동침할 것을 요구했다 (13:8-11).

⁸So Tamar went to her brother Amnon's house... ¹⁰Amnon said to Tamar, "Bring the food into the bedroom, that I may eat from your hand."... ¹¹Now when she had brought them to him to eat, he took hold of her and said to her, "Come, lie with me, my sister." (2 Sam. 13:8-11)

⁸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 ¹⁰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 ¹¹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삼하 13:8-11)

- D. Tamar refused Amnon, protesting that such a thing would be disgraceful (13:12-13). She urged him to think about the long-term negative consequences for both their lives—she would be put to shame, and his reputation as heir to the throne would be ruined for many would consider him to be a fool.

다말은 암논을 거절했으며, 이러한 일은 욕된 일이 된다고 반대했다 (13:12-13). 그녀는 장기적으로 두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을 생각해보라고 암논에게 간청했다. 그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여김으로 왕위를 이어받게 될 그의 명성에 해를 입게 될 것이다.

¹²"No...for no such thing should be done in Israel. Do not do this disgraceful thing! ¹³And I, where could I take my shame? And as for you, you would be like one of the fools in Israel..." (2 Sam. 13:12-13)

¹²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 ¹³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 (삼하 13:12-13)

- E. Amnon raped his sister Tamar (13:14-16). His feelings of shame and guilt turned his lust to hatred.

암논은 자신의 자매인 다말을 범했다 (13:14-16). 그의 정욕은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인해 미움으로 변했다.

¹⁴However, he would not heed her voice...he forced her and lay with her. ¹⁵Then Amnon hated her exceedingly, so that the hatred with which he hated her was greater than the love with which he had loved her. And Amnon said to her, "Arise, be gone!" (2 Sam. 13:14-16)

¹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¹⁵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 (삼하 13:14-16)

- F. David expressed his great anger about Amnon's evil deed done to Tamar, but without giving any consequences to Amnon. Perhaps David hesitated to act due to guilt over his own adultery and murder and because such behavior by the heir to throne would bring shame on the royal family.

다윗은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일로 인해 심히 노했다. 하지만 암논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행했던 간음과 살인으로 인해,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을 자가 행한 일로 인해 왕가에 끼칠 수치를 생각해서 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했다.

²¹*But when King David heard of all these things, he was very angry.* ²²*And Absalom spoke to his brother Amnon neither good nor bad. For Absalom hated Amnon, because he had forced his sister Tamar. (2 Sam. 13:20-22)*

... ²¹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²²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삼하 13:20-22)

III. ABSALOM MURDERED HIS BROTHER AMNON (2 SAM. 13:23-39)

압살롬이 형제인 암논을 살해하다 (삼하 13:23-39)

- A. For two years Absalom plotted to kill Amnon. Amnon's rape of Tamar mirrored David's adultery with Bathsheba, while Absalom's murder of Amnon mirrored his murder of Uriah. David knew he had received mercy after his great sin so he had a difficult time administering a penalty to his sons.

압살롬은 2년 동안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일은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한 것을 생각나게 하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다윗은 자신이 큰 죄를 지은 이후에 자비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적절한 형벌을 내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²³*And it came to pass, after two full years, that Absalom had sheepshearers in Baal Hazor... so Absalom invited all the king's sons. (2 Sam. 13:23)*

²³ 만 이 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 털을 깎는 일이 있으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삼하 13:23)

- B. Absalom requested David and his officials join his feast in Baal Hazor (15 miles, NE of Jerusalem). Absalom commanded his servants to murder Amnon at the feast (13:28-29).

압살롬은 다윗과 신하들에게 바알하솔(예루살렘 북동쪽 15 마일, 약 24km)의 그의 축제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에게 암논을 축제에서 죽이라고 명령했다 (13:28-29).

²⁴*Then Absalom came to the king and said, "Kindly note, your servant has sheepshearers; please, let the king and his servants go"...* ²⁷*Absalom urged him; so he let Amnon and all the king's sons go...* ²⁸*Now Absalom had commanded his servants, saying, "Watch now, when Amnon's heart is merry with wine, and when I say to you, 'Strike Amnon!' then kill him..." (2 Sam. 13:24-28)*

²⁴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 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 ²⁷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²⁸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 (삼하 13:24-28)

- C. Absalom fled to his maternal grandfather who ruled the small kingdom of Geshur about 80miles NE of Jerusalem (13:37-39; cf. 3:3). He stayed there for three years.

압살롬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80 마일(125km) 떨어져 있는 그술이라는 작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외할아버지에게 달아났다 (13:37-39; 비교 3:3). 그는 그곳에서 3 년을 머물렀다.

³⁷But Absalom fled and went to Talmai...king of Geshur...³⁸Absalom fled and went to Geshur, and was there three years. ³⁹And King David longed to go to Absalom. (2 Sam. 13:37-39)

³⁷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매에게로 갔고 ... ³⁸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삼년 이라 ³⁹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 (삼하 13:37-39)

IV. JOAB'S PLAN TO BRING ABSALOM BACK TO JERUSALEM FROM EXILE (2 SAM. 14)

피신한 요압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한 요압의 계획

- A. Joab devised a plan to move his uncle David to bring his cousin Absalom back from exile. Joab coached a woman on how to dress and act, and what story to say to David. She came before David as a widow in mourning and told a story designed to get David to change his mind about Absalom.

요압은 자신의 삼촌인 다윗을 움직여서 사촌인 압살롬을 도피한 곳으로부터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꾸몄다. 요압은 한 여인에게 어떻게 옷을 입으며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줬다. 그녀는 애통해하는 과부의 모습으로 다윗 앞으로 나아갔으며, 다윗이 마음을 바꿔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하기 위한 스토리를 말했다.

¹Joab...perceived that the king's heart was concerned about Absalom. ²And Joab sent to Tekoa and brought from there a wise woman, and said to her, "Please pretend to be a mourner, and put on mourning apparel...³Go to the king and speak to him in this manner." (2 Sam. 14:1-3)

¹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²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 ³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삼하 14:1-3)

- B. The woman told David a story that was similar to how Cain killed his brother Abel, yet the Lord spared Cain's life (14:4-7, cf. Gen. 4). Joab knew that David would be familiar with that Scripture.

이 여인은 다윗에게 가인이 형제인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과 유사한 스토리를 말했다 (14:4-7; 비교 창 4 장). 요압은 다윗이 이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을 알았다.

⁵And she answered, "Indeed I am a widow...⁶your maidservant had two sons; and the two fought ...one struck the other and killed him. ⁷And now the whole family has risen up...and they said, 'Deliver him who struck his brother, that we may execute him...' So they would extinguish my ember that is left, and leave to my husband neither name nor remnant..."¹¹And he said, "As the LORD lives, not one hair of your son shall fall to the ground." (2 Sam. 14:5-11)

⁵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 ⁶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죽인지라 ⁷ 온 족속이 일어나서 ... 그의 동생을 쳐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 ¹¹ ...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삼하 14:5-11)

- C. David's decision to spare the son was not based on the legal requirements in the Scripture (Gen. 9:6; Ex. 21:12; Lev. 24:17), but on the biblical account of God's merciful dealings with Cain. The Lord had shown a similar mercy to both Cain and David as the precedent for David's decision.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기로 한 다윗의 결정은 말씀에 기록된 율법의 요구 사항을 따른 것이 아니었으며 (창 9:6; 출 21:12; 레 24:17),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일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다윗 모두에게 유사한 자비를 베푸셨으며, 이는 다윗의 결정에 대해 선례로 작용을 했다.

- D. Before leaving David's court, she applied his decision to his own family (14:12-17). She argued that since God in mercy had spared both Cain's life and David's life (for their murders), it would not be wrong for him to show a similar mercy to Absalom. The Lord establishes ways to restore, and David as the Lord's representative in matters of justice should do the same.

그녀는 다윗의 공정을 떠나기 전에 다윗이 내려준 결정을 다윗의 집안에 대해 적용했다 (14:12-17).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그들의 살인에 대해) 가인과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셨으니,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와 유사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님은 회복시킬 길을 여시는 분이며, 공의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다윗도 동일한 일을 해야만 했다.

¹³For the king speaks this thing as one who is guilty, in that the king does not bring his banished one home... ¹⁴Yet God does not take away a life; but He devises means, so that His banished ones are not expelled from Him." (2 Sam. 14:12-17)

... ¹³ ...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¹⁴ ...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 (삼하 14:12-17)

- E. Absalom was permitted to return to Jerusalem, but not to the royal court. Possibly some of David's godly counselors were against Absalom returning to Jerusalem. David seemed to be taking the Lord's dealing with Cain as his model—the Lord spared Cain's life, but Cain complained of being hidden from Lord's face (Gen. 4:14). Absalom's restriction from the royal court meant that as the heir-apparent he had lost his claim to Israel's throne. By killing his brother, Absalom removed himself from the royal succession, as Cain had also removed himself from significant blessings.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되었지만, 공정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다. 아마도 다윗의 경건한 신하들 중 몇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대했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루신 것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주님은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했다 (창 4:14). 압살롬이 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제한 조건은, 그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압살롬은 자신의 형제를 죽임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없게 되었다. 가인도 자신의 형제를 죽임으로 큰 축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²¹And the king said to Joab, "All right...go therefore, bring back the young man Absalom"...

²³So Joab arose and went to Geshur, and brought Absalom to Jerusalem. ²⁴And the king said, "Let him return to his own house, but do not let him see my face." (2 Sam. 14:21-24)

²¹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 ²³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²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 (삼하 14:21-24)

F. Since Absalom could not approach David, he asked Joab to send him to David (14:28-32).

압살롬은 다윗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기에, 요압에게 자신이 다윗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14:28-32).

²⁸*Absalom dwelt two full years in Jerusalem, but did not see the king's face...* ³²*Absalom answered Joab, "Look, I sent to you...so that I may send you to the king...therefore, let me see the king's face; but if there is iniquity in me, let him execute me."* ³³*So Joab went to the king and told him. And when he had called for Absalom...The king kissed Absalom.* (2 Sam. 14:28-33)

²⁸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 ³²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³³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삼하 14:28-33)

V. ABSALOM'S CONSPIRACY TO OVERTHROW DAVID (2 SAM. 15:1-12)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압살롬의 음모 (삼하 15:1-12)

A. After being restored to the court, Absalom implemented his plan to overthrow David (15:1-6). Notice six things that Absalom did to steal hearts of the people away from David.

압살롬은 왕궁으로 회복되고 난 후,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시행했다 (15:1-6).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압살롬이 한 6 가지 일들을 잘 살펴보라.

¹*...Absalom provided himself with chariots and horses, and fifty men to run before him. ²Now Absalom would rise early and stand beside the way to the gate. So it was, whenever anyone who had a lawsuit came to the king for a decision...³Absalom would say to him, "Look, your case is good and right; but there is no deputy of the king to hear you."⁴Moreover Absalom would say, "Oh, that I were made judge in the land, and everyone who has any suit or cause would come to me; then I would give him justice."⁵And so it was, whenever anyone came near to bow down to him, that he would put out his hand and take him and kiss him. ⁶In this manner Absalom acted toward all Israel...So Absalom stole the hearts of the men of Israel.* (2 Sam. 15:1-6)

¹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오십 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²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 ³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⁵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⁶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삼하 15:1-6)

1. *Establishing an image of importance (15:1):* With chariots, horses, and runners, he cultivated an image of being an important and powerful leader.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세움 (15:1): 그는 병거와 말, 호위병을 사용해서 자신이 중요하며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세워나갔다.

2. **Positioning** (15:2): The gate was the place “lawsuits” were settled.

자리를 잡음 (15:2): 성문은 “송사(재판)”가 이루어지는 자리였다.

3. **Flattering** (15:3): He assured each person that they were right and their case was good.

아첨하는 말 (15:3): 그는 각 사람들에게, 그들이 맞고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4. **Criticism of leadership** (15:3): He told them David did not provide a deputy to care for them.

리더에 대한 비난 (15:3): 그는 그들에게 다윗이 그들을 돌볼 대리인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5. **Exaggerated promises**: (15:4): He promised that he would give each one justice.

과장된 약속 (15:4): 그는 각자에게 공의를 베풀 것을 약속했다.

6. **Insincere affection** (15:5): He drew each one close enough to kiss.

진실하지 못한 사랑 (15:5): 그는 입을 맞출 정도로 각 사람을 끌어당겼다.

- B. Absalom worked to steal the hearts of Israel at the city gate for four years (15:7-9). Deceptively, he asked David if he could go to Hebron to fulfill a vow to the Lord. Since Hebron was 20 miles from Jerusalem, it was a safe distance for Absalom to organize his rebellion against David

압살롬은 4년간 성문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일했다 (15:7-9). 그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갚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도 되는지를 속이며 물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20마일(32km)이나 떨어져 있었기에, 이는 압살롬이 다윗을 향한 반역을 행하기에 충분히 먼 거리였다.

⁷...after forty [four] years that Absalom said to the king, “Please, let me go to Hebron and pay the vow which I made to the LORD. ⁸For your servant took a vow while I dwelt at Geshur in Syria, saying, ‘If the LORD brings me back to Jerusalem, then I will serve the LORD.’” (2 Sam. 15:7-9)

⁷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⁸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 (삼하 15:7-9)

- C. Absalom prepared messengers to go throughout Israel to make a coordinated proclamation that “Absalom is king in Hebron.” One element in his plan was to detain 200 valuable leaders in the government at the time when David needed them most to respond to the national emergency.

압살롬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계획적으로 외칠 정탐꾼들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보냈다. 그의 계획 중 또 하나는 다윗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200명의 중요한 정부 지도자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그들을 억류해두는 것이었다.

¹⁰Then Absalom sent spies throughout all the tribes of Israel, saying, “As soon as you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then you shall say, ‘Absalom reigns in Hebron!’” ¹¹And with Absalom went two hundred men

invited from Jerusalem, and they went along innocently and did not know anything. ¹²Then Absalom sent for Ahithophel...David's counselor...And the conspiracy grew strong, for the people with Absalom continually increased in number. (2 Sam. 15:10-12)

¹⁰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¹¹ 그 때 이백 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¹² 제사 드릴 때에 ...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삼하 15:10-12)

- D. Ahithophel's counsel was so highly esteemed that it was described, "as if a man inquired at the oracle of God" (16:23). His defection from David greatly strengthened Absalom's conspiracy because of his great influence with the people. Bathsheba was the granddaughter of Ahithophel.

아히도벨의 조언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큰 존경을 받고 있었다 (16:23). 아히도벨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에, 그가 다윗으로부터 돌아선 사건은 압살롬의 음모에 큰 힘이 되었다. 밋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였다.